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믿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양심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믿으려 하지 않아요!”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니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문제는 다른 누가 부과한 불행이 아니라, 스스로 초래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불신앙’이 그렇게 쉽게 눈에 띠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장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파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적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기에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묘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제리 토마스가 쓴 [뿌리 깊은 영성은 훈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늑대와 곰은 분명 벼룩보다 위험하다. 그러나 늑대와 곰보다 벼룩이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의 인내력을 더 많이 시험한다. 살인을 피하기는 쉽지만 작은 욕정들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것들을 제어하기는 어렵다. 간음을 피하기는 쉽지만 결눈질하거나 사랑의 신호를 주고받거나 야첨의 말을 듣는 것을 피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큰 유혹들에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작고 별 것 아니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적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불신앙의 문제,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들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불신앙

오늘 제목이 재미있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말.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늘 우리 앞에 보이는 그 무엇을 믿고 있는가?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 ."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을 때. . .

눈앞에 지푸라기라도 있다면 잡고 싶은 심정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처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살려면 그 지푸라기를 놓아야 합니다. 지푸라기를 잡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보다는 신기루와 같은, 힘없는 지푸라기를 놓고 바닥에 우리의 발이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 바닥을 차고 올라가야 합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의 힘이 빠져 나갑니다. 누구고 힘쓰고 있는 사람을 물에서 꺼낼 수 없습니다. 힘이 빠져야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나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완전한 나의 절망과 좌절,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큰 바위 얼굴]의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관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설을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된 뒤 한숨 속에 살면서 술에 중독되고 맙니다.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한 번도 바가지를 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호손의 혈기가 놀리고 모든 힘을 잃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직장도,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하지만 한 가지 얻은 게 있어요."

"얻은 거? 나 같은 인간이 얻은 게 있다고?"

"물론이죠!"

"그게 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을. . ."

그 순간 호손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일에 쫓길 때는 "시간이 없어서 죽겠네. . ."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 때부터 호손은 2년 동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주홍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찾게 되었던 것이지요.

철저하게 깨어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불잡고 싶은 것을 불드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인인 제퍼슨 버스케(Jefferson Bethke)는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이 남자친구(여자친구)는 내가 원하던 사람이에요',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신은 과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심판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70년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버스케는 "무엇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장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70년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산타클로스나 지니와 같은 존재로 바꾸어 놓는지 모른다....: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레이스파밀리 침례교회 목사이자 강사인 보디 보챔(Voddie Baucham)은 기독교인들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3가지 방식으로 왜곡한다며 "먼저, 우리는 이것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해진 약속인데,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면서 이를 왜곡한다"고 전했다. 두번째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양한 세대들을 위한 약속인데, 우리는 이를 지금의 약속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우리를 위한 약속인데 나를 위한 약속으로 왜곡한다"고 했다. 그는 이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인들 개인의 건강과 부귀에 대한 약속으로 가르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구약학 교수이자 'God Behaving Badly : Is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Angry, Sexist and Racist?'의 저자인 데이비드 램도 보챔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램 교수는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을 신실하게 적용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11절을 인용할 때 29장에 대해 최소한 2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먼저는 이 말씀이 우리 대부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사망을 슬퍼하고, 이동 중이었으며, 일시에 노예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희망을 말씀하실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라고 전했다.

두번째로 “이들은 ‘나’에 대한 계획이 아닌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서신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여전히 공동체를 갖고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가장 잘못 인용되는 구절 美 교계 인사들 “역사적·문학적 상황 고려해야”
기독일보 입력 Aug 12, 2013 07:12 AM PDT]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푸라기들을 내려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푸라기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를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참 ‘억울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잠깐 댔는데 스티커를 발부 받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변에 차 댈 장소가 없었어요. 잠깐만 일을 보고 나오려고 했어요. . . 등 등.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선택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며,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잠깐 타협하면서 지푸라기를 잡을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요셉은 귀공자로 태어나서 귀염을 받고 자랐을 뿐 아니라 요즘으로 이야기 하면 F4 같은 꽃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지푸라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유혹하는 사모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대충 타협을 한다면, 비밀을 잘 유지한다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푸라기를 잡는 대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지푸라기를 포기하는 순간 절망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요, 평생 가보지 않은 감옥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나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함을 보았으니까요.

요셉이 만일 지푸라기를 잡고 있었다면 결코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수 없이 많은 지푸라기들이 보일 것입니다. 무엇을 잡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롬 8:18)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 틀림없이 찾아오는 지푸라기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도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 커닝을 한다고 해 보세요. 당장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람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삶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인생이 저 아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푸라기는 분명히 사탄의 유혹이기에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요한 계시록 3장 15-16절을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가워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양다리라는 '지푸라기' 놓기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simple life'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결단하리라는 원칙을 세워보십시오.

그 결단은 우리의 고민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일화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 이단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남겨진 가족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교도소장이 제안을 합니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다녀오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존 번연은 지푸라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지요.

존 번연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감옥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을 빠져 나가던 존 번연이 금세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불편한 표정으로, 소장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돌아오셨나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존 번연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장님 책임지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철장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이 보낸 신하가 감옥 시찰을 나온 것입니다. 그 신하는 존 번연이 감옥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펼쳐지는 순간에 무턱대고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달콤한 지푸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유혹을 믿고, 잠시의 편안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양손에 들고 있는 지푸라기를 놓는 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쉬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대충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대충 우리들 삶의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는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누려야 하는 어떤 것을 포기하라거나,
직장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무능한 사람으로 살라거나,

학업을 포기하고 성경만 보면서 학업에 뒤쳐진 지진아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은, 지금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진지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인디안 부락만을 찾아다니며 선교하다가 어느 날 인디안 추장을 전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인디안 추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되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얼마 지난 후 선교사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자 사슴 가죽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물을 드리면서 “선교사님, 우리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선교사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사슴 가죽을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안 추장은 실망하며 돌아가더니 얼마 후에 아주 멋진 백마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귀한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장은 더욱 낙심하여 돌아갔고 그 다음에는 뼈로 만든 머리장식을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머리장식을 보고 이상히 여긴 선교사가 “왜 이것을 드립니까?”라고 물어보니, “이 장식은 추장의 상징으로서 나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주님께 바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교사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장식이 쓸모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낙심하면서 “그려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소중한 모든 것은 다 바쳤고 이제는 제 생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펼쳐 인디안 추장에게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푸라기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결정적인 순간에 양다리를 걸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부분이 아닌 전 존재를 드리려는 신앙의 고백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심성에는 늘 육신의 정욕과 죄악 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낸시 레이 드모스가 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품, 거룩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영을 좋아하던 ‘곰 전문가’ 티모시 트레드웰은 10년 넘게 여름이 되면 비무장 상태로 알래스카 회색 곰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며 촬영을 했다.

그는 곰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가 이름을 지어 주고 때로는 바로 옆까지 접근해 그들을 만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출연해 곰은 대체로 무해하고 사교적인 동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2년 후인 2003년 10월 6일, 곰의 공격을 받고 죽은 트레드웰과 그의 여자 친구의 시신이 알래스카 반도의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 발견되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다. 야생동물은 ‘교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야생동물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해도, 그들은 조만간 본성에 따라 행동하게 마련이다. 이 교훈을 무시하는 것은 폭탄을 갖고 장난치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생동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과 조심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죄에 가까이 가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죄는 ‘무해하다’라는 무의식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몇 년 동안 죄와 함께 놀았지만 한 번도 심하게 물린 적이 없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 책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지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들이 결코 이기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지푸라기를 잡은 자들은 결국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은 결국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강력한 믿음으로 유혹에 대하여 선포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지푸라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